뷝뷝뷟뷧-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모든 잎새들이 사랑스런 악기죠”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0>

제38호 풀피리 보유자 오 세 철씨

구성진 ‘한 오백년’이 흐르는가 했더니 맑고 경쾌한 ‘밀양 아리랑’이 거실을 가득 매운다.

‘풀피리 소리 잘 모르죠. 먼 길 오셨으니 우선 노래 한곡 들어보라’며 시작한 민요다.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산세가 높고 험한 포천시 영북면 자일2리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38호 풀피리 보유자 오세철씨(47)를 만났다.

단출하면서도 쓰임새 있게 살림살이가 정돈된 그의 거실에는 여느 집이든 쉽게 볼 수 있는 화초와 꽃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다.

하지만 꽃나무들의 잎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드문드문 잎사귀를 매달고 있었다.

“연습하거나 손님이 오면 뜯어다 즉흥 연주를 하지요. 또 학생들을 30여명 가르키는데 잎사귀들을 쓰고 있어요”

오씨가 오늘 처음 들려준 연주에 사용한 것은 귤나무잎이다.

“잎사귀의 강도와 두께에 따라 소리가 조금씩 다르죠. 길다란 잎도 가능하지만 넓은 음폭과 다양한 기교가 가능한 복숭아잎을 제일로 칩니다”

섬유질이 많고 탄력성이 좋아 옛부터 복숭잎을 주로 사용했으며, 공연때는 수십여개의 잎이 붙어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한다.

중학생 시절 50리길 자전거 타고 故 전금산 선생 찾아 풀피리 배워

농촌 들녘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던 풀피리 소리가 어떻게 문화재가 됐을까.

오씨는 중학생시절 연천에 풀피리 잘한다는 당시 80세의 전금산 선생에게 1년간 풀피리 연주법을 배웠다.

50리가 넘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 배운 열정도 열정이지만 집안의 걱정을 한몸에 받았다고 한다.

“집에서는 공부 안하다고 어른들의 걱정이 심했어요. 그런데 풀피리 소리가 그냥 좋더라구요”

한 3개월 배울 무렵 풀피리 소리 내는 법을 익힌 후 ‘밀양 아리랑’과 ‘청춘가’ 같은 것을 호기심에 연습했다고 한다.

그 후 독학으로 연습에 매진한 오씨는 현재 알고있는 음계는 무엇이든 연주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능계가락’이나 ‘염불타령’, ‘굿거리’ 같은 기악곡은 물론, 민요, 가요, 동요, 팝송까지 멜로디만 알면 자유자재로 연주한다.

또 산세가 험해 야생동물과 맹금류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오씨는 이들 동물들의 소리를 곧잘 흉내낸다.

“제가 동물을 무척 좋아해요. 소쩍새나 뻐꾸기 등 15여종의 새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특히 오씨의 연주는 일류 피리 연주자 못지 않은 성음과 시김새(장식음)가 일품이며, 밀고 땅기는 듯한 리듬감이 멋드러진다.

민요에서 팝송까지…자유자재 연주 소쩍새·뻐꾸기 등 새소리도 흉내내

오씨는 무대에 서는 문화재인 동시에 100마지기 대농을 일구는 농부다. 철원평야와 이웃한 포천에서 계절마다 논밭을 가꾸며, 넉넉한 농심(農心)을 지녀 그의 연주에는 꾸밈보다는 순박한 우리네 농부의 감칠맛이란 표현이 더 어울린다.

“지금 논에 미꾸라지를 키우려고 땅을 파 놓았는데, 올해 새로운 농사예요”

2002년 11월 문화재가 되기까지 그의 이력은 재미난 구석이 많다. 1978년 ‘MBC-TV 묘기대행진’에서 풀피리와 피아노 협주를 열었으며, 같은해 ‘KBS-TV 민요백일장’에서는 풀피리와 뱃노래를 불러 입상도 했다.

국악계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1999년 국악인 이은관 선생(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을 만나면서부터다.

‘흔하지 않은 목청’이라며 오씨의 고운 목청을 높이 샀던 스승은 풀피리로 인해 나쁜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한다.

스승에게 서도소리와 배뱅이 굿을 배워 이수자가 된 오씨는 이후 각종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0년 11월 국립극장 ‘피리를 위한 무대’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했고 ‘오세철의 음악세계’란 주제로 다음해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자신의 고향인 포천 반월문화아트홀에서 풀피리와 배뱅이 굿을 선보였다.

이때 선보인 자작곡 ‘한탄강 아리랑’은 남북을 흐르는 한탄강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메나리조로 읊은 작품이다. 여기다 오씨의 풀피리 산조도 큰 눈길을 끌었다.

“국립극장에서 기획한 ‘피리를 위한 무대’는 대금, 소금 등 온갖 피리 연주자들이 참여한 공연이었어요. 아마 저의 공연을 관람한 여러 선생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오씨의 풀피리 솜씨는 타고난 것만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농사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가량 배뱅이굿을 완창하고, 30여분간 풀피리 연주를 한 후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바로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풀피리는 초금(草琴)이나 초적이라고도 하며, 나뭇잎이나 나무껍질·풀잎 등을 입술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

흔히 풀피리라 하면 버들피리나 보리피리에서 볼 수 있는 호돌기를 연상하지만 풀잎의 형태나 연주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조선시대 초기에 제작된 ‘악학궤범’에서는 ‘초적은 도피(桃皮 복숭아나무 껍질)를 만 것으로 잎사귀를 입에 물고 휘파람을 부는데, 그 소리가 맑게 진동하며, 귤과 유자의 잎사귀가 더욱 좋다’고 하였다.

또 1744년(영조 20)의 진연의궤(進宴儀軌)에 관현맹인(管絃盲人) 초적 악사 강상문(姜尙文)이 궁중 진연에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악학궤범’에 보이는 초적은 어떤 형태로든 궁중음악에서 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은관 선생에 서도소리·배뱅이굿 사사 오는 9월 제자 30명과 개인발표회 계획

또한 중국 문헌에는 도피피리(도피필률)를 삼국의 악기로 치는 것으로 보아 도피피리까지 포함한다면 초적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올라 갈 수도 있다.

이와함께 풀피리는 민간에서 민속축제에 널리 연주되었다. 남도 민요에서는 초적을 불며 축제를 벌이기도 했으며, 일제강점기 때 강춘섭은 초적을 잘 불던 명인으로, 그의 초적 시나위와 초적 굿거리가 취입된 유성기 음반이 남아 있다.

오씨는 일제시대와 서구문화풍조를 거치면서 사라질뻔한 우리 전통악기인 풀피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불면불수록 다양한 소리에 끌려요. 사람의 목소리로 내기 어려운 서도소리도 풀피리는 잘 뽑아내는 것이 매력이라면 매력이지요”

현재 그의 막내딸 오연경양(14)이 전수자로 아버지의 소리를 잇고 있다. 국악고에 진학예정인 연경양 또한 정확한 음계와 리듬감을 갖고 있다.

오씨가 풀피리를 부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술을 좋아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나 지친 농사일에 잠시 소리를 하기도 한다.

지난해 프랑스 공연일정을 잡아 놓고도 현지 사정때문에 취소되기도 했던 오씨는 오는 9월께 예술의 전당이나 국악원 무대에서 개인발표회를 계획중이다. 이때 자신의 제자 30여명이 함께 출연해 전통의 맥을 잇고 있음을 당당히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전수자인 딸 연경양과의 듀엣곡을 요청하자 요즘 인기절정인 MBC 대장금 주제곡을 멋드러지게 연주했다. 이날 취재는 한편의 실내악 공연을 듣는 듯했다. 536-2801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사진/원지영기자 jywon@kgib.co.kr

닮방 한쪽 벽면을 도배하듯 가득 메운 배뱅이굿 가사를 매일 새벽 4시에 완창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오세철씨.

아버지의 소리를 잇겠다는 막내딸 연경양과 풀피리를 연주하는 오세철씨.